

“보다 나은 국민생활을 위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평 불만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일런지도 모른다. 아무리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또한 설사 누구나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업무라하더라도 인간사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상의 관념을 깨뜨리기도 하듯, 10여년간 의보사업에 종사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질 시간조차 없었으며 구미공단단지 의료보험조합 申炳奎 대표이사는 말문을 연다.

기자는, 그런 모습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불같은 집념의 소유자라는 것을 느낀다.

『의보업무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의보혜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부족했고 시행구조상의 문제점도 있었을 뿐아니라, 특히, 저희 조합원들의 대다수가 저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넘어야 할 고개가 많았습니다.』라고 그는 초창기 사업 당시의 어려웠던 일들을 회상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매일 매일의 회의를 정착화시켜 각종 당면과제를 분류, 처리함으로써 의보업무 과학화에 역점을 두어 왔고 또, 의보혜택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몽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곳 구미공단은 많은 공장들이 24시간 가동하는 공업도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2교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집단계몽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이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할 때입니다”

구미공업단지 의료보험조합 申炳台 대표이사

켜보면 저희 조합직원 전체가 홍보요원이 되어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교육했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힘들었던 시절로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조합직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해서 오늘의 구미공단 의보조합으로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申대표이사는 호탕한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었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어렵게 살면서도 선진조국을 이룩해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또 그 덕분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죠.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분야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진국형의 국민의식을 갖추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국민생활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인 의보조합 환원사업으로 건협과 공동으로 실시한 근로자 건강검사는 국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라며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자기 소신을 밝혔다.

국민건강관리를 위하여 건협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묻자 그는, 『작년에 저희 조합원 10,000명을 대상으로 간염검

사를 한 결과 6,098명이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합원 개인 건강 뿐만 아니라 넓게는 수출한국 차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체력이 곧 국력이란 현실에서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협은, 이번엔 저희 조합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일해주셨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자세를 언제나 잊지마시고, 그리고 정확한 검사결과 통보와 사후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역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앞장서온 그는 모든 공을 조합직원들에게 양보하기도하여 직장인으로서의 미덕을 보여준 숨은 공로자.

신대표이사는 “정직하게 살자”라는 가훈아래 金南秀여사와의 사이에 1남5녀를 둔 모범가장이다.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며 산행을 즐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김정현·글)